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6월 15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한 16,12-15)



삼위일체

12~16세기까지 러시아의 노브고로드 시를 중심으로 성화나 벽화를 주로 그렸던 노브고로드 화파(畫派)에서 제작한 <삼위일체> 이콘에서 성부는 노인으로서, 성자는 아이로, 성령은 비둘기로 그려져 있다. 성부가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부를 상징한다. 성자 예수님은 아이의 모습으로 성부의 무릎에 앉아 있다. 성부께서 파견한 성자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간으로 강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성자를 통해 성부에게서 파견된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성자가 성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성령도 성자의 무릎 위에 있다. 성자는 힘차게 날갯짓하는 성령의 비둘기가 있는 둥근 원을 양손으로 잡고 있다. 이것은 성부가 성자를 품고 있듯이, 성자도 성령을 자신의 몸 안에 품고 있는 모습이다. 성자의 가슴 안에서 비둘기는 활기차게 날갯짓하며 빛을 발산하고 있다.

작가 노브고로드 화파(畫派) | 1420년경, 목판에 템페라,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러시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분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요한 16,14ㄱ 참조)

내가 남들을 위해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 16,15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 전체의 머리글(창세 1,2-3)과 그 구절을 빼닮은 요한복음의 머리글(요한 1,1)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함께 존재하는 하느님의 영과 로고스(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축일의 제1독서(잠언 8,22-31)에서도 ‘한 처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진’(8,23) 하느님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세상을 풀 지으실 때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8,30ㄱ)이자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던’(8,30ㄴ) 존재로서 마치 부모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어린이, 주위 모든 대상과 경계 없이 대화하고 놀이를 시도하는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보여주신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들 곁에는 그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영이 감돌고 있고, 그것은 아담이 생명을 지닐 수 있게 해주었던 하느님의 숨입니다.(창세 2,7)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전한 관계는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요한 19,30ㄷ)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아이처럼 뛰놀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진리의 영(요한 16,13)께서 오심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16,12) 우

리 안에 남아 있는 순수하지 못한 것, 미움의 감정 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축일을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의 영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청하도록 합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16장 13ㄱ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예수님과 나, 그리고 세상 ▶ 교황님 6월 기도지향 '세상을 향한 연민'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다함께 성시간 참여하기
- ② 예수 성심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기 [생활성서사 추천도서]



내 삶 속에서

- 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성체조배 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